

# 단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 인문계열 문제 (오후)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지구 표면적의 백분의 구십구가 이 공포의 초록색이리라. 그렇다면 지구야말로 너무나 단조무미한 채색이다. 도회에는 초록이 드물다. 나는 처음 여기 표착(漂着)하였을 때 이 신선한 초록빛에 놀랐고 사랑하였다. 그러나 덧새가 못 되어서 이 일망무제(一望無際)의 초록색은 조물주의 몰취미(沒趣味)와 신경의 조잡성으로 말미암은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인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쩔 작정으로 저렇게 퍼러나. 하루 온종일 저 푸른빛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푸른 것에 백치와 같이 만족하면서 푸른 채로 있다.

이윽고 밤이 오면 또 거대한 구렁이처럼 빛을 잃어버리고 소리도 없이 잔다. 이 무슨 거대한 겸손이냐.

이윽고 겨울이 오면 초록은 실색(失色)한다. 그러나 그것은 남루(襤褸)를 갈기갈기 찢은 것과 다름없는 추악한 색채로 변하는 것이다. 한겨울을 두고 이 황막하고 추악한 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자살(自殺) 민절(悶絶)하지 않는 농민들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거대한 천치(天痴)다.

그들의 일생이 또한 이 벌판처럼 단조한 권태 일색으로 도포(塗布)된 것이리라. 일할 때는 초록 벌판처럼 더워서 숨이 콕콕 막히게 싱거울 것이요,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겨우 황원(荒原)처럼 거칠고 구주레하게 싱거울 것이다.

그들에게는 흥분이 없다. 벌판에 벼락이 떨어져도 그것은 뇌성(雷聲) 끝에 가끔 있는 다반사에 지나지 않는다. 촌동(村童)이 범에게 물려 가도 그것은 맹수가 사는 산촌에 가끔 있는 신벌(神罰)에 지나지 않는다. 실로 전선주 하나 없는 벌판에서 그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흥분할 수 있으랴.

팔봉산(八峯山) 등을 넘어 철골 전선주가 늘어섰다. 그러나 그 동선(銅線)은 이 촌락에 얽서 한 장을 내려뜨리지 않고 섰는 채다. 동선으로는 전류도 통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방이 아직도 송명(松明)으로 어둡침침한 이상 그 전선주들은 이 마을 동구에 늘어선 포플러 나무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출처 : 이승원 외, 『고등학교 문학』

[나] 군대란 일반적으로 이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들을 완전한 무위, 즉 합리적이고 유익한 지적 활동을 무시하는 상황 속으로 끌어넣고 일반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대신 연대의 명예라든가 군복, 군기 등의 형식적인 가치만을 내세운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무한한 권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노예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명문가의 부유한 장교들만이 선택되어 근무할 수 있는 근위대에서 볼 수 있듯이, 군복이나 군기 숭배, 또는 폭력이나 살인의 용인이 따르는 군대 복무의 일반적인 타락에 황족과 가까이 지낸다는 우월감이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의 타락이 더해질 경우, 이 환경 속에 빠진 인간들은 완전한 이기주의의 발광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다. 네흘류도프는 군대에 복무하게 되어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보내고 나서부터 이와 같은 발광 상태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자기 손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지고 손질된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역시 남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손질된 칼을 차고, 역시 남의 손

으로 훈련되고 사육된 말을 타고, 동료들과 같이 교련이나 사열을 하든가 말을 달리며 군도를 휘두르고 총을 쏘고, 또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도 늙은이도 황제도 그 측근들도 이 일을 좋아할 뿐 아니라 이를 칭찬하고 노고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 다음으로 훌륭하고 값어치 있게 여기는 일은 식사나 술을 하기 위해 장교 클럽이나 최고급 레스토랑에 모여 출처도 모르는 돈을 흥겹게 뿌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극장, 무도회, 여자, 그리고 다시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며 달리고는 또 돈을 낭비하고 술과 도박과 여자를 되풀이했다.

출처 : 톨스토이, 『부활』

[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 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못 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이 안겨 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얹매어 있던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거나 않은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낭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란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日常)에 내장되어 있는 ‘안이한 연루(連累)’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 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은 풍요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다가 넓고 밝은 길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개천도 이윽고 강을 만나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진리를 감사하였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드넓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어디쯤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탁(度) :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림.

출처 :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가]와 [나]를 활용하여 [라]와 [마]를 설명하고, [다]의 관점에서 [마]와 [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시민 사회에서 사상이나 제도, 타인의 영향력은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람시(A. Gramsci)가 말한 합의를 통하여 작용한다. 따라서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어떤 사상이 다른 사상보다도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 형태가 다른 문화 형태에 비하여 단연코 우월하다. 이러한 문화적 주도권의 형태는 그람시에 의해, 공업화된 서양 사회의 문화 생활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인 헤게모니로 인정되었다. 오리엔탈리즘에 대하여 지금까지 설명해 온 지속성과 힘을 준 것이 바로 헤게모니이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문화적 헤게모니가 작용한 결과이다.

출처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동양과 유럽의 관계에서 유럽은 언제나 강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뵈푸어(A. J. Balfour)가 동양 여러 문명의 '위대함'을 인정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럽의 동양에 관한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위장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정치, 문화 나아가 종교적 차원에서조차 양자의 본질적 관계를 어디까지나 대립하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동양인은 '비합리적이고, 저열하고, 유치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유럽인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성숙하고, 정상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양 역시 어느 정도의 문화적 수준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동양에 관한 강자와 약자의 관계는 동양의 반발을 약화하면서 생명을 얻고 유지되었다.

출처 :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문화'는 지식을 지닌 사람들 (또는 적어도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과 무식한 사람들 (또는 그들을 교육하려는 포부를 지닌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계획되고 예상된 합의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것은 한쪽만 서명하고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합의, 새롭게 형성된 '교육받은 계층'이 독점적으로 지휘하는 가운데 구현되는 합의로서 구체제의 잔해에서 '새롭고 개선된' 질서를 빚어낼 권리를 추구한다. 이 계층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최근 새롭게 형성된 국민 국가에서 시민의 역할을 맡은 민중을 승격시키고 기품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라고 공언한다. 새롭게 형성되어 스스로 주권 국가로 성장하는 국가, 자산관리자의 역할을 맡으려는 그 새로운 국가와 짝을 이루어 그 나라의 수호자이자 옹호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계몽적 기획'은 (경작과 유사한 활동으로 이해되는) 문화에 국민을, 국가를, 국민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제공했으며, 그 수단을 지식 계급의 손에 쥐어 주었다. 정치적 야망과 철학적 숙고 사이를 오가며, 계몽 사업의 두 가지 목표는 곧 (공개적으로 선언되었건 암묵적으로 전제되었건 간에) 국민의 복종과 결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잠재적인 노동자와 군인의 수가 증가하면 국력이 강해지고 안전이 보장된다고 여겨졌으므로, '대중'의 성장은 국민 국가 형성에 자신감을 더해 주었다. 그러나 국가 건설과 경제 성장이 합쳐지면 인구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새롭게 확립된 국민 국가는 오래 지나지 않아 국경 밖에서 새로운 영토를 찾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낀다. 국가 영토가 자기 국경 안에 과도한 인구를 수용하는 능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멀리 떨어진 지역을 지배해 식민지로 삼는 데 성공할 가능성은 문화적 계몽이라는 발상에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를 개종시킨다는 사명을 부여했다. 그 개념은 '민중의 계몽'이라는 거울상으로서, '백인의 사명'이며 '야만인을 그들이 놓인 원시적인 상태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형성되었다.

출처 : 지그문트 바우만, 『유행의 시대』

[다] 개인들이 사회를 닦지 않아 사회 전체의 공통적인 윤리와 도덕 체계가 공유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사회는 자유를 누리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가 질서와 균형을 지켜 나가는 것은 구성원들이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 체계를 잘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윤리와 도덕 체계를 가진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다른 윤리 의식과 가치를 지닌 개인들에게 특정한 가치와 도덕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나 감정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의 폭압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고, 사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생각이나 관행을 강요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가 개인의 개성 발달을 억압하면서까지 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관한 방어막이 필요하다.

출처 : 손영찬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라] 생물계에서 강자의 권리 경쟁이 발생하면 몸과 마음이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쓰러뜨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 인간도 모든 생물과 그 근원을 같이하며 …… 그 몸과 마음의 강약에 따라 강자의 권리 경쟁이 발생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승리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 사회가 진보하고 발달하는 것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생기며, 다른 인종들이 모인 사회에서는 그 인종의 우열로 귀천의 차이가 생겨난다. ……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생기는 권력 경쟁도 …… 동물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맹목한 성질을 떨 수밖에 없다. …… 이는 결코 도덕에 반하고 법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출처 : 안병우 외,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마] 이 시대사조(時代思潮)는 우리 땅에도 들어와 각 방면으로 개조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 사람으로서 시급히 할 개조는 실로 조선 민족의 개조외다.

대체 민족 개조란 무엇인가. 한 민족은 다른 자연 현상과 같이 시시각각으로 어떤 방향을 취하여 변천하는 것이니 한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의 변천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략)……

남자가 상투를 버리고 여자가 쓰개를 벗어 버린 것이 어떻게 무서운 변화이오리까.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날이 변하여 갑니다. 더욱이 재작년 3월 1일 이래로 우리의 정신의 변화는 무섭게 급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금후에도 한량없이 계속될 것이 외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변화외다. 또는 우연의 변화외다. 마치 자연계에서 끊임없이 행하는 물리학적 변화나 화학적 변화와 같이 자연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행하는 변화외다. 또는 무지몽매한 야만 인종이 자각 없이 추이(推移)하여 가는 변화와 같은 변화외다.

문명인의 최대한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진로를 밟아 노력하면서 시각마다 자기의 속도를 측량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본능이나 충동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생활의 목적을 확립합니다. 그리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행동은 오직 이 목적을 향하여 통일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의 특색은 계획과 노력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문명한 민족의 특징도 자기의 목적을 의식적으로 확립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적이요 통일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적이요 통일적인 노력을 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시 시대의 민족, 또는 아직 분명한 자각을 가지지 못한 민족의 역사는 자연 현상의 변천의 기록과 같은 기록이로되 이미 고도의 문명을 가진 민족의 역사는 그의 목적의 변천의 기록이요, 그 목적들을 위한 계획과 노력의 기록일 것이외다. 따라서

원시 민족, 미개 민족의 목적의 변천은 오직 자연한 변천, 우연한 변천이로되 고도의 문명을 가진 민족의 목적의 변천은 의식적 개조의 과정이외다.

출처 :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바] 스웨덴은 척박한 땅과 혹독한 겨울로 인해 사람들이 돌밭을 일구다가 지치면 포기하고 떠나 버렸던 나라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당선된 45세의 총리 에를란데르(T. Erlander)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일단 그는 23년 간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업 대표 및 노조 대표와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였다. 그사이 파업은 완전히 사라졌다. 또한 그는 육아, 의료, 교육, 주거 등과 같은 문제가 국민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 개인과 한 나라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동 수당, 전 국민 무상 의료 보험,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무상 교육, 주택 수당법 등을 실현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국민을 설득하였으며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고, 합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게 하였다. 스웨덴은 국민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이다. 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여성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동자 등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에를란데르 총리는 1969년 정치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그에게는 여생을 보낼 자기 집 한 채도 없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의 사례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은 생산 요소의 수요자로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등 가계 소득의 원천을 제공한다. 기업가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업가는 기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고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고용 차별, 불합리한 해고, 환경 오염 등 다른 주체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 고용, 낙후된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예술 및 교육 사업 지원 등과 같은 적극적 행위를 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 <기업의 사회적 책임 7개 원칙>

1.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책임
2. 조직의 의사 결정 및 활동의 투명성
3. 윤리적 행동
4.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존중
5. 법치 존중
6. 국제 행동 규범 존중
7. 인권 존중

출처 : 김종호 외, 『고등학교 경제』

[나]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발생 현황>

출처 : 환경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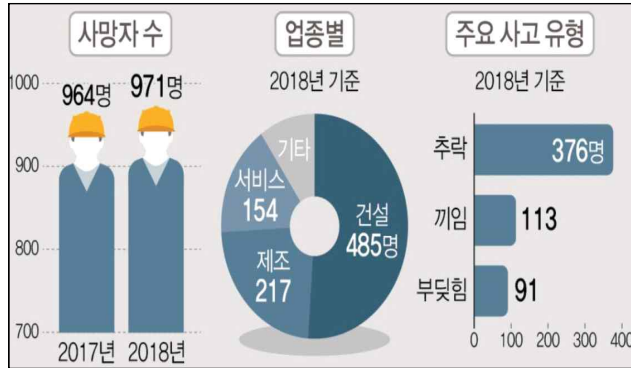
자료 제공 : 미국기상학회, 미국국립해양대기국.

#### <세계 기온 변화 및 온실가스 농도 추이>

출처 : 『국제신문』, 2018. 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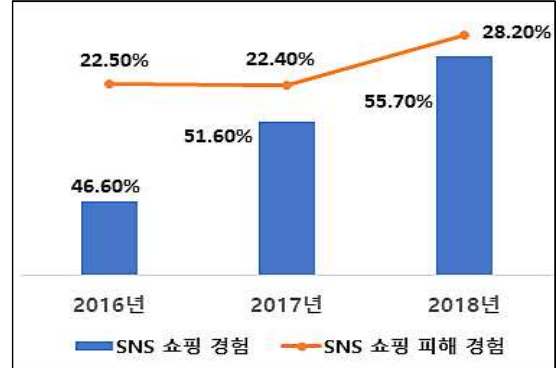
[다]



자료 제공 : 고용노동부.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19.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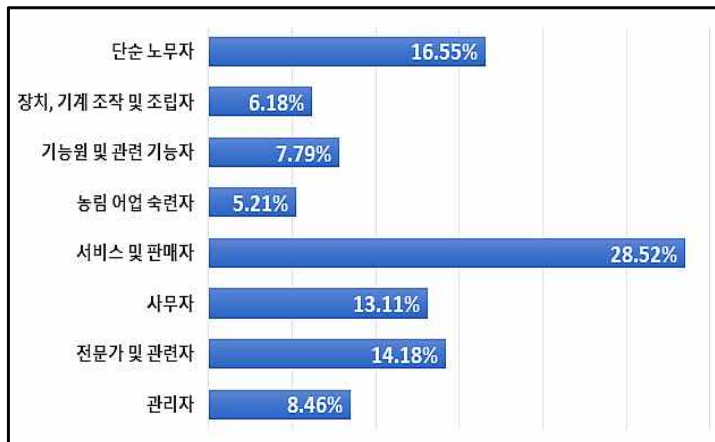


자료 제공 : 서울시.

<SNS 쇼핑 및 피해 경험>

출처 : 『연합뉴스』, 2019.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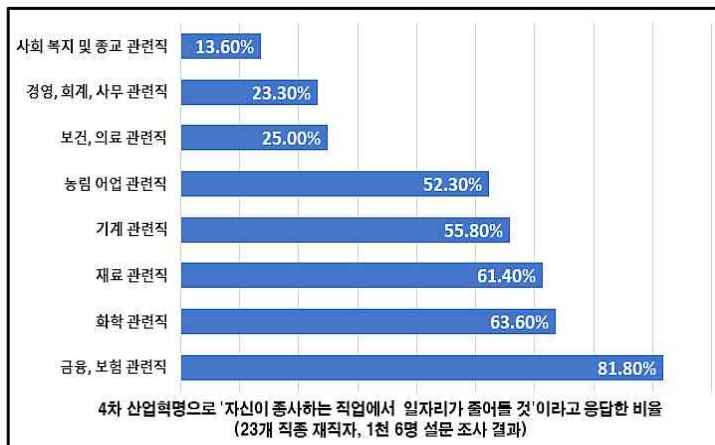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근로자 중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감정 노동’ 종사자들이다. …… 감정 노동자들이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에 시달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스트레스가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 제공 : 통계청.

<자살 근로자 직업별 비중>

출처 : 『한국일보』, 2018. 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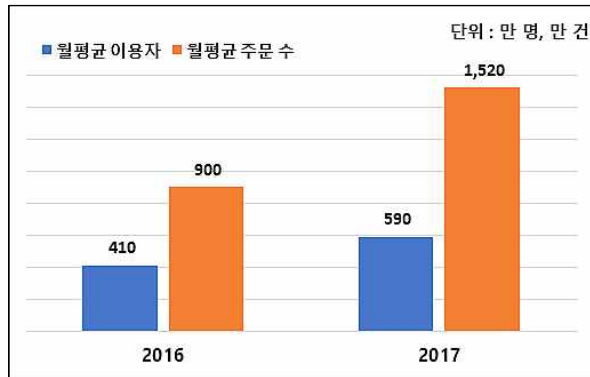


자료 제공 : 한국고용정보원.

<인공 지능, 첨단 기술로 인한 직종별 일자리 감소 전망>

출처 : 『연합뉴스』, 2016. 10. 24.





자료 제공 : 배달 전문 업체 A 회사.

<배달 전문 업체 A 회사의 성장 추이>



자료 제공 :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부.

<이륜차 사고 증가 추이>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19. 5. 20.

[라] 일감 몰아주기란 쉽게 말해 대기업이 특정한 하청 기업에 관련 일거리들을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특정 하청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의 자회사라는 데 있다. 모자 관계처럼 대기업이 모(母)의 역할을 하고, 하청 기업이 자(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자회사는 자연스럽게 생산과 판매량이 늘어나고, 이에 모회사의 가치 역시 추가로 상승한다. 이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원리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기에 다른 작은 기업에 하청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하청의 대부분이 자회사로만 넘어가면 대기업은 자회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기업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서 말이다. 다른 기업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감을 얻을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제정하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공정 거래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법을 위반할 때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2018년 말 기준)

오너 일가 지분율*	20% 미만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100%
내부 거래* 비중(%)	12.9	9.9	11.3	11.5	24.2
회사 수(개)	1,467	215	175	126	65

\* 지분율 :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익 가운데 일부를 투자자의 지분에 비례해 나누어 주는데, 그 기준이 되는 비율을 지분율이라고 함.

\* 내부 거래 : 대기업 내 계열 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를 의미함.

<오너 일가 지분율 구간별 내부 거래 비중 현황>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9.

[마] [사례 1] A 회사의 플로리다주 탐파 영업소 직원들은 수천 명의 간호사들에게 1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A 회사 영업 사원들이 “전혀 새로운 상품이며, 오늘날 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퇴직 연금 상품”이라고 광고하여 실질적으로 생명 보험인 상품을 연금 상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즉 고객들이 저축 예금으로 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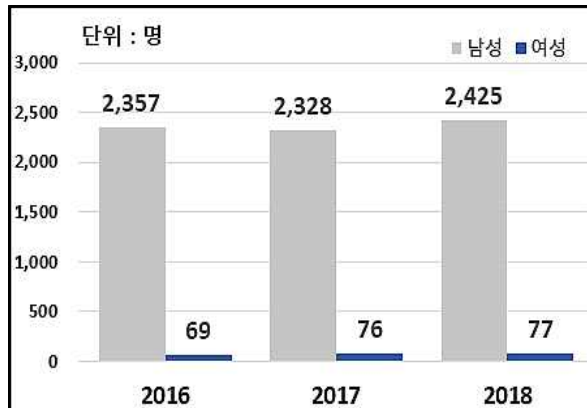
납입하였던 돈은 사실은 보험료였다는 것이다. 이에 1993년 8월 플로리다주는 A 회사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 브리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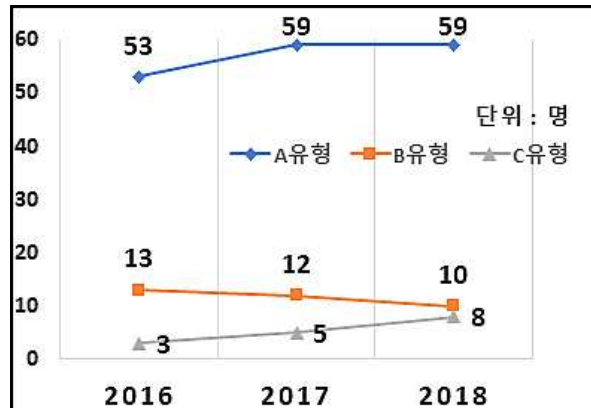
[사례 2] 독일 자동차기업 B 회사가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집단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한 독일의 소비자들에게 8억 3천만 유로(약 1조 1천 8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디젤 게이트는 B 회사가 지난 2015년 9월 1천 70만 대의 디젤 차량을 상대로 배기가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B 회사는 당시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 실제 주행 시에는 연비 절감을 위해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화 질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20. 2. 29.

[사례 3]



<성별 사내 이사 현황>



<유형별 여성 사내 이사 현황>

- \* A 유형 : 지배 주주(오너) 일가인 경우
- \* B 유형 : 대주주(투자자)와 관련된 경우
- \* C 유형 : 능력·경력을 인정받아 승진·스카우트된 경우

출처 : 이영호 외, 『수능완성 사회·문화』